

조선시대 사찰벽화와 그 보존에 관한 연구 (朝鮮時代 寺刹壁畫와 그 保存에 관한 研究)

白 燦 圭

(文化財補課)

목 차

I. 머리말	IV. 壁畫 保存方案
II. 寺刹壁畫의 展開와 形式	V. 맺음말
III. 寺刹壁畫의 頽落現狀 및 原因	

I. 머리말

사찰벽화는 사찰건물 내외부에 그려진 건물벽화의 하나로 건축과 회화의 접목(接木)으로 이루어진 회화의 한 장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것이 언제부터 조성되었는지 현존하는 유구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물에서 벽체(壁體)발생과 회화의 전개과정을 통해 그 두 분야의 접목시기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벽면에 대한 인간(人間)의 표현욕구는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의 암각화에서 이미 시작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초보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벽화(壁畫)는 전개 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는 고려시대 부석사 조사당 벽화(浮石寺 祖師堂 壁畫)를 비롯하여 대부분 조선시대 이후 사찰건물에 남아 있다. 조선시대 사찰벽화는 그 형식에 있어서 예불적(禮佛的) 기능을 지닌 예불화(禮佛畫)와 교화적(敎化的)인 내용으로 그려진 교화화(敎化畫), 불단(佛壇)과 전각(殿閣)을 장엄(莊嚴)하는 장엄화(莊嚴畫)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불적 기능을 지닌 벽화는 대개 전각 내(內) 좌우와 뒷면의 큰 벽면을 차지하면서 그려져 있다. 그 내용은 아미타삼존도(阿彌陀三尊圖), 약사삼존도(藥師三尊圖), 관음삼존도(觀音三尊圖) 등의 각각 독립된 삼존도 형식을 취한 것으로 예불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화화는 대개 전각내의 화반벽(花盤壁)에 그려진 것으로, 그 내용은 나한도 팔상도(羅漢圖 八相圖) 등의 주로 신도(信徒)들을 교화시키려는 목적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엄화(莊嚴畫)는 불단에 모여진 불상을 더욱 위엄있게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에서의 후불벽화(後佛壁畫)와 같은 불단장엄화(佛壇莊嚴畫)와 전각 전체를 부처의 세계로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에서의 주락비천도(奏樂飛天圖), 불보살상도(佛菩薩像圖)와 같은 전각장엄화(殿閣莊嚴畫)가 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각 사찰벽화는 현재 많은 량이 없어졌고 현

존하는것들은 퇴락상태가 심하나 보존대책이 없다. 이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사찰벽화의 전개과정과 형식을 살펴보고 퇴락원인(頽落原因)과 현상(現狀)을 살펴 보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보존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II. 사찰벽화(寺刹壁畫)의 전개

1. 사찰벽화(寺刹壁畫)의 전개

건물벽화가 언제부터 조성되었는지를 현재 남아있는 유구만으로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건축과 회화 두 분야가 어느 한 시점에서 접목(接木)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조성시기(造成時期)는 원시주거 건축양식(原始住居 建築樣式)과 그것의 유구, 그리고 현존하는 고분벽화(古墳壁畫)의 고찰을 통하여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건축물에 벽체가 나타난 시기는 기록상으로 보아 삼한시대라 할 수 있다. 1)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건물벽화가 제작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또한 삼국시대 고분벽화의 전사적(前史的) 단계였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러나 벽화가 목조건물에 본격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시기는 중국의 신건축양식이 도입되어 우리나라에서 목조건축이 축조된 2~3세기와 때를 같이 했다고 생각하며 그 양식의 계승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고 있다.2)

건물벽체에 그림을 그려넣는 소위 벽화제작술의 발달과 유행은 고분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고분의 그림들은 벽면을 분할하여 그림을 그려넣는 방법 즉 벽화의 개념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서 덕흥리 고분벽화(德興里 古墳壁畫)의 13군태수(圖1)에서와 같이 기둥, 두공, 도리 등 건축물가구재(建築物架構材)를 도시(圖示)하고 그림속에 건물벽체를 설정하여 인물 등의 그림을 배치한 것이 건물벽화 제작관행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3)

백제는 공주 송산리와 부여 능산리 고분벽화가 제작되어 그로 인해 건물벽화의 형식을 다소 알 수 있으며 신라는 영주 순흥리 어숙묘벽화(榮州 順興里 於宿墓壁畫)와 읍내리벽화(邑內里壁畫)가 있어 지상의 벽화제작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또한 기록에 따라 많은 사찰벽화가 제작 되었음을 알 수 있다.4) 이어서 고려시대는 불교가 통치이념(統治理念)의 바탕이 되었으며 개경십사(開京十寺)를 위시하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찰이 조영되었다.5)

1) 三國志 魏志 東弗傳 弁辰條 “其國作室構累木爲之有以宰沃也…”

2) 金正基(1981), “三國時代의 木造建築” 「考古美術」 150호, p.3 扶餘族이 신건축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구려는 건국당초부터 신건축양식을 이어받아 발달하였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金元龍(1960). “高句麗古墳壁畫의 起源에 대한 研究” 「震檀學報」 제21호, 진단학회, p.120에서 고분벽화는 고구려가 평양으로 移都한 이후 封土石室墳의 발생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이론을 토대로 이 시기에 벽화가 지상건축물에 제작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3) 이러한 제작관행은 고구려 담징이 法隆寺 金堂의 벽화를 그렸다는 구전을 통해서 확실히 된다.

4) 三國遺事 卷五 感通 第七 仙排聖每隨喜佛事
 _____ 月明師兜率歌
 _____ 神呪 第六 密本崔邪
 _____ 卷三 塔像 第四 芬皇寺 千手大悲盲兒得眼
 _____ 義解 第五 關東風岳鉢淵記
 _____ 塔像 第四 興輪寺壁畫普賢

고려시대에 제작된 벽화는 현존하는 부석사 조사당 벽화(浮石寺 祖師堂 壁畫)와⁶⁾ (圖 2) 몇 개의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문종(文宗)이 1076년 최사훈(催思訓)과 화공(畵工)들에게 중국 하남성(河南城)의 상국사(相國寺) 벽화를 모사하여 흥왕사(興王寺)에 그리도록 하였고⁷⁾ 또 최석(催奭)의 흥왕사 도장음찬시(道場音讚詩)는 전각(殿閣)을 은통 오천(五天)의 공(功)을 그려 장엄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⁸⁾ 그리고 이에(李預)의 삼각산중수승가굴기(三角山重修僧伽窟記)와 선원사(禪源寺) 벽화, 금주 안양사탑중수기 등(衿州 安養寺塔重修記 等)의 기록이 동문선(東文選)에 전하고 있다.⁹⁾

위의 기록들은 모두 고려후기의 사찰건물 벽화들로서 다양한 주제가 교화(敎化)와 예불용(藝佛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각 내의 벽화형식은 조선시대에 이어져 더욱 예불적(禮佛的)이고 교화적(敎化的)이며 장엄적(莊嚴的)인 형식으로 전개되었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사찰벽화는 다량으로 제작되었으며 일반건축에도 벽화가 그려졌다. ¹⁰⁾그러나 일반건축에서의 벽화는 거의 소실되었고 주로 사찰건물에만 남아 있는데, 임진왜란 이전 작으로는 강진 무위사(康津 無爲寺) 벽화가 있으며 대다수는 임진왜란 이후의 작품들이다.

2. 사찰벽화(寺刹壁畫)의 형식(形式)

사찰 내의 전각에 그려진 벽화는 주로 토벽화(土壁畵)로 이루어졌으며 판벽화(板壁畵), 화장지벽화로도 제작되었다. 벽화의 내용은 커다란 벽면에 그려진 예불적 기능의 예불화(禮佛畵)와 신도들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화화(敎化畵), 그리고 전각을 장엄하기 위한 장엄화(莊嚴畵)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벽화를 총괄하여 볼 때 예불적인 벽화는 양측벽과 후불벽뒷면에 그려져 있고, 교화적인 벽화는 포벽(包壁)과 천장 밑의 화반벽(花盤壁)에 그려져 있으며 장엄적인 벽화는 포벽(包壁)과 불단(佛壇)을 장엄하는 후불벽에 주로 그려져 있다.

예불화에는 아미타삼존도(阿彌陀三尊圖)나 약사삼존도(藥師三尊圖) 등 三尊圖 형식을 이룬, 양 측벽에 그려져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불화가 포함되고 교화화에는 나한상(羅漢像), 선승 등 독존상(獨尊像)이나, 좌우에 동자(童子)를 동반하여 화반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포함된다. 장엄화에는 거의 단독불상도(單獨佛像圖)내지는 공양화(供養畵)와 같은 포벽화와 후불벽화가 포함된다. 이러한 전각내(殿閣內)의 벽화는 부처에 대한 공양과 신도들에게 전각을 부처의 세계로 인식시키려는 의도에 따라 그려졌다고 생각한다.

(1) 예불화

예불화는 대개 삼존도(三尊圖) 형식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미타삼존도(阿彌陀三尊圖)나 약사삼존도 관음도 보살도(藥師三尊圖 觀音圖 菩薩圖) 등이다. 그리고 이 예불벽화들은 여러쪽의 토벽(土壁)에 걸쳐 그려진 정도로 그 규모가 크며 시각적(視覺的)

5) 許興植(1986),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pp.498~521

6) 金東賢(1976), “浮石寺無量壽殿과 祖師堂”, 「月刊 文化財」 10호, 문화재관리국

文明木(1977), “浮石寺祖師堂壁畵試論”, 「불교미술」 3집, 동국대학교 박물관, p.26

7) 菊竹淳(1981), “高麗佛畵에 있어서의 中國과 日本”, 「高麗佛畵」 東京, 朝日新聞社, p.11

8) 東文選 卷之十二 七言律詩 「興王寺 慶讚道場音讚詩」

9) 東文選 卷之六十四, 卷之六十五, 卷之七十六

10) 金正新(1979), “한국전통건축색채장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9

으로 가장 들출되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사찰벽화 가운데 예불화로서 대표적인 것은 강진무위사 극락전(康津無爲寺 極樂殿)의 좌우측벽에 그려진 설법도(說法圖)(圖 3), 아미타래영도(阿彌陀來迎圖)(圖 4)와 염산 신흥사대적광전내(染山 新興寺大寂光殿 內)의 아미타삼존도(圖 5) 약사삼존도(圖 6) 육대보살도(六大菩薩圖)(圖 7), 후불벽뒷면벽화(圖 8) 등이 있다. 또한 통도사 영산전(通度寺 靈山殿)의 견보탑품변상도(見寶塔品變相圖)(圖 9)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표범연화경을 그린 것으로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다.¹¹⁾

이외에 예불화에 속하는 후불벽화뒷면벽화가 다음과 같이 현존하고 있는데 그 예로는 무위사(無爲寺)의 후불벽뒷면벽화(圖10)을 위시하여 위봉사(威鳳寺), 흥국사(興國寺), 선운사(禪雲寺),마곡사(麻谷寺), 대원사(大原寺)등에 있다.¹²⁾

(2) 교화화(教化畫)

교화화(教化畫)는 신도들을 교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천정 아래 화반벽이나 양 측벽의 불벽(佛壁)에 일련(一連)의 교화내용을 가진 고승도(高僧圖), 나한도(羅漢圖), 팔상도(八相圖) 등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例)로는 내소사 대웅보전(來蘇寺 大雄寶殿)의 화반벽에 그려진 고승도와 개암사 대웅보전(開巖寺 大雄寶殿) 화반벽에 그려져 있는 고승도, 그리고 마곡사 대광보전(麻谷寺 大光寶殿) 내부 벽면에 그려져 있는 나한도(羅漢圖), 신흥사 대적광전(新興寺 大寂光殿) 동서측벽에 그려져 있는 팔상도(八相圖)등이 있다.

(3) 장엄화(莊嚴畫)

장엄화는 불단(佛壇)을 장엄하는 불단장엄화 전각(殿閣)을 장엄하는 전각장엄화로 구분되는데 불단장엄화에는 후불벽화가 포함되고, 전각장엄화에는 주락비천도(奏樂飛天圖), 포벽에 그려져 있는 좌불,공양화(坐佛,供養畫)등이 있다. 그 가운데 불단장엄화의 예(例)로는 무위사 극락전(圖 11), 선운사 대웅전 등의 후불벽화(圖 12)가 있고, 전각장엄화의 예(例)로는 건물 내외의 작은 포벽에 그려져 있는 공양화, 좌불도(坐佛圖), 비천도 등으로 신흥사, 은해사(銀海寺),내소사, 개암사 등의 불보살도(佛菩薩圖)와 무위사 극락전, 위봉사 보광명전, 신흥사 대적광전, 화엄사 원통전(圓通殿) 등의 주악비천도가 있다.

Ⅲ.사찰벽화(寺刹壁畫)의 퇴락현상(頽落現狀) 및 원인(原因)

벽화의 보존을 위해서 먼저 벽화의 단면구조(斷面構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후 퇴락현상과 원인에 대한 조사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장에서는 그동안 필자가 조사했던 벽화 가운데 7개 사찰 8동 건물의 500여개 벽화를 대상으로 간략하게 살펴 보기로 한다.

1. 벽화(壁畫)와 벽체 구조(壁體 構造)

사찰벽화는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흙벽화가 주종을 이루고 나무판 위에 그린 판벽화도 그 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돌벽화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한지(韓紙)를 두겹게 바르고 그린 첩부벽화가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후불벽뒷면 등에서 찾아 볼 수

11) 文明大(1981), 「한국의 佛畫」 悅語堂,p.109

12) 오세례(1990), “朝鮮時代 後佛壁畫裏面白衣觀音圖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있다. 이외에도 각목(角木)이나 판재(板材)를 흙벽으로 연결하고 그 표면에 그림을 도화하여 흙과 나무 양면에 걸쳐 한 쪽으로 그려진 경우도 있다.

벽화는 형태나 제작방법 그리고 재질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벽화의 단면(斷面)은 어느것이든 대개 2 내지 3개의 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단면의 구성은 동양에서는 물론 서양의 벽화에서도 공통된 현상으로 그 구성재료만이 다를 뿐이다. 벽화의 단면을 그림이 그려진 표면부터 살펴 본다면 안료층이 있다. 이것은 벽체 표면에 그림이 입혀진 층으로 두께가 1mm 내외 밖에 안되는데 이것의 구성재료는 광물성과 식물성 안료의 접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료층 밑에는 대개 그림을 그리기 위해 벽면을 곱고 평탄하게 바름질한 바탕층이 있는데 흙벽화의 경우는 그 두께가 10mm 내외가 되고 판벽화(板壁畫)는 간혹 2~3mm의 두께로 호분이나 토분을 나무판에 바른 경우도 있으나 바탕층이 생략된 경우가 많다. 흙벽화의 바탕층 재료에 있어서 한 건물에서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은 재료가 같지만 후에 보수한 것은 반드시 원래의 것과 차이가 있다. 구성재료는 고운모래와 진흙, 그리고 짚여물 또는 식물성 섬유나 동물성 섬유가 혼합되어 있다. 바탕층 밑에는 안료층과 바탕층이 유지되도록 보호,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다. 흙벽화에서는 진흙의 초벽과 외가지가 이 부분에 해당되고 판벽화는 목판(木板)이 들벽화는 암반이나 석판(石板)이 지지층의 역할을 한다.

대개 목조건물에 벽체를 만드는 시기는 목조가구재의 조립공사와 지붕의 번와공사가 끝난 뒤 시작한다. 기둥과 수장에 의지해서 중깃은 박고 외를 엮어 벽골(壁骨)을 마련한다.

중깃은 각목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외가지와 마찬가지로 물푸레나무나 싸리가지 수수깡 장작개비 대나무 등 현지에서 구입하기 쉬운 것으로 사용한다. 흙벽화 가운데 가로 길이가 긴 직사각형은 중간에 각재의 중깃이 세워지기 때문에 토벽이 2등분 되거나 또는 3등분되어 한쪽의 그림이라도 여러쪽의 벽화가 되기도 한다. 규모가 작은 건물은 중깃과 외의 구분없이 싸리나무나 가는 대나무를 여러개 모아 한 묶음으로 사용한다. 이 외가지들은 칩이나 짚으로 만든 새끼로 엮어 놓는다. 이것을 밭과 같이 설치한 뒤 내부 벽면부터 먼저 초벽을 치고 어느정도 흙이 건조하면 건물 외부에서 맞벽을 친다. 흙은 차진 진흙을 사용하고 들을 체로 쳐낸 뒤에 물을 주면서 이긴다. 이때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 짚이나 지룻대의 껍질을 썰어 골고루 섞는다. 흙은 흙받이에 담아 흙손을 써서 꼭꼭 눌러 힘주어 가며 외의 틈을 비집고 눌러 넣어 밀착시킨다. 맞벽을 치고 나면 나무로 만든 흙손으로 벽면을 골고루 문질러 요철이 심한 부분은 반듯하게 고른다. 초벽 위에는 갈라진 틈새를 메우기 위해 진흙을 몽당빻자루나 맨손으로 덧바르는 소위 새벽질 또는 사벽을 친다. 이 부분이 곧 벽화의 단면에서 바탕층을 이루는 부분으로 흙은 차진 진흙보다 점력이 약한 진흙, 명개흙, 석비레, 백토 등을 고운 모래와 섞어 이겨 쓴다. 고장에 따라서는 식물성, 동물성 수사를 섞어 갈라짐을 방지한다.

벽을 만들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물인데 여물은 흙벽이 건조될 때 수축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거나 분산시킨다. 또한 흙을 바를 때 재료에 끈기를 주어서 처지거나 떨어짐을 억제한다. 재사벽까지 완성되면 화공이 벽면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황토나 너죽으로 밑 바탕칠을 하고 본 그림을 그린다.

2. 퇴락현상

벽화의 퇴락은 벽화가 제작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인 원인으로 노화(老化)되거나 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이 현상은 대부분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벽화의 표면이 마멸되거나 이물질로 오염되어 색채의 변화 또는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사찰 건물벽화를 통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무위사 극락전 벽화(無爲寺 極樂殿 壁畫)

건물의 축조는 1430년에 이루어지고 벽화들은 1476년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벽화가 제작된 당시에는 건물 내외부 모두 벽면에 벽화가 그려졌을 것이나 1954년 건물보수 시에는 건물내부 창방이상 동서측벽의 벽과 남측, 북측 포벽 그리고 후불벽 앞뒤에만 모두 31폭의 벽화가 남아 있었다. 현재는 후불벽화 2폭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물로부터 해체하여 보호각에 보관하고 있다. 현존하는 벽화의 대부분은 당초 벽화가 퇴락된 후 다시 그려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은 공양화(供養畫)의 경우 덧바른 벽화 표면이 탈락되고 속그림이 노출되므로서 나타나는데, 노출된 벽화(圖 13)들과 1476년에 제작된 후불벽화(後佛壁畫)들은 그림의 색조가 유사하고 바탕색에 황토분(黃土粉)을 사용한 것이 공통된다. 그러나 새로 덧그린 벽화들은 바탕색을 녹색으로 칠했고 그 필치와 격조가 옛 벽화만은 못하다.¹³⁾

(2) 신흥사 대적광전 벽화(新興寺大寂光殿壁畫)

벽화는 건물 외부의 포벽과 측벽에 17폭이 있고 내부에 57폭이 있어 모두 74폭이 있다. 벽화는 건물이 창건된 1657년 이후 1801년 증수한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① 건물외부벽화

남측의 포벽화(包壁畫)에는 화조(花鳥)들이 아름다운 색조와 필치로 그려져 있다. 벽체는 강회(강회)가 섞인 단단한 흙벽으로 미세한 균열이 부분적으로 발생해 있다. 벽체구조는 안전한 상태이지만 채색층이 마모되고 가는 선으로 굵힌 곳이 많다. 또한 건물 보수 시 횃물과 먹물들이 떨어져 오염되었으며 색조는 퇴색되었다.

동측에는 7인의 주락천인(奏樂天人)(圖 14)이 율동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색조와 필치가 서측벽화와 같지만 실내 벽화들 보다는 고풍(古風)스럽다. 이 벽체에서 주락천인들은 풍판(風板)으로 가리워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고, 풍판 하단에 있던 벽화들은 거의 마멸되어 형태를 알아 볼 수가 없다. 벽화들은 풍화작용으로 테두리가 마멸, 탈락되고 수장재(벽선, 중깃 등)를 중심으로 균열되거나 흩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벽화 표면은 흩어 마멸되고 균열 부위를 따라 골이 깊게 파였다. 가장자리에 위치한 좌우측의 벽화들은 중앙보다 퇴락상태가 더 심하다 서측에도 벽화가 있으나 동측보다 퇴락마멸이 심하여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다습하고 음지인 북측의 포벽화는 모두 소멸되었다.

② 건물 내부 벽화

건물 내부 벽화들은 실외벽화들보다 보존상태가 좋으나 표면의 오염이 심하고 습기에 의한 침해를 받으며 균열 파손 과정을 겪고 있다.

동측벽 중앙칸 위에는 약사삼존도(藥師三尊圖)가 그려져 있다. 벽화는 보기 드물게 고풍스러우며 그 규모가 크다. 벽화 표면은 불순물로 오염이 심하고 습기로 얼룩이 졌

13) 無爲寺極樂殿修理報告書(1956), 文教部,(1984), 文化財管理局

다. 표면은 미세한 균열이 거북이등과 같은 모양으로 발생되었고 벽화 중앙을 가로지르는 상인판(上引板)과 2개의 벽선(壁線)을 중심으로 흠이 탈락되었다. 벽틈새는 종이풀로 메꾸었으나 건물의 퇴락으로 벽화의 바탕층이 파손되고 채색층도 박락이 진행되고 있으며 벽화 좌측 하단에는 인사자상(人獅子像)이 한쪽 있으나 지면과 외부벽면으로부터 유입되는 습기로 인해 복부 아래가 없어지고 현재 종이풀로 메워져 있다.

서측벽에는 아미타삼존도가 동측의 약사삼존도와 마주하고 있다. 벽화는 중앙에 상인방이 가로지르고 있고 다시 2개의 벽선으로 나뉘어 6쪽의 토벽으로 분할되어 있다. 동측 약사삼존도와 같이 벽체에 미세한 균열이 많으며 표면의 오염이 심하다. 목재 수장재와 맞닿은 부분은 흠이 탈락되고 채색층에도 박락이 진행되고 있다. 이 벽화의 밑에는 보살(菩薩) 6인이 그려져 있고 맨 아랫단에는 사천왕(四天王)이 그려져 있다. 보살상은 윗 벽화와 같은 형식을 보이나 사천왕상은 벽체 구조가 윗 벽화들만큼 단단하지 못하고 속이 들떠 있다. 또한 표면의 많은 부분이 탈락되어 가칠되었고 인위적으로 굵히거나 패인 곳이 많다. 이 벽화의 우측에 위치한 팔부중(八部衆)도 복부 아래가 훼손되어 서측의 인사자상과 함께 공통된 퇴락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벽화 표면의 채색층 퇴락은 물론 채색층을 지지, 보완하는 벽체구조가 취약하고 이미 많은 부분이 파손되었다. 실내에서 상단, 측 천장에 인접한 곳의 벽화들은 대부분 누수가 되어 그림을 뿌렇게 오염시켰고 불순물의 침착이 심하며 포부재(包部材)들이 움직이면서 벽체를 균열, 파손시켰다.

(3)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 벽화(銀海寺 百興庵 極樂殿 壁畫)

건물은 전면 측면 모두 3칸으로 21평 다포(多包) 건물로 흑서명(黑書銘)에 의하면 1673년 1817년에 그려진 것으로 생각한다.¹⁴⁾ 벽화는 모두 79쪽(87쪽)으로 건물 외부 포벽에 30쪽, 내부 포벽에 25쪽 내목도리장설(內目道里長舌)와 내목장설(內目長舌) 사이에 세워진 벽에 24쪽이 남아 있다. 벽화의 재료로 볼 때 토벽화(土壁畫)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건물 귀퉁이에 설치된 포벽과 천장 밑의 벽화는 한 쪽의 그림이 판벽(板壁)과 토벽(土壁)으로 구성되기도 하였으며 판벽(板壁)으로만 설치된 곳도 있다. 이와같이 판벽화(板壁畫)가 설치된 까닭은 지붕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荷重)을 평방(平枋)이나 포작(包作)에 전달시키면서 지붕 구조를 안전하게 지탱하려는 구조역학상(構造力學上)의 조치로 생각한다.

① 건물외부벽화

이 벽화들은 모두 포벽(包壁)에 그려진 것으로 남측의 보존상태가 그중 나은 편이고 동측 서측은 탈락, 마멸 상태가 심하다. 그러나 북측은 절개지와 숲이 인접하여 다습(多濕)한 만큼 벽화가 모두 소멸한 상태이다.

포벽화들은 매우 활달하고 능숙한 필치로 석가모니 단독상이나 보살상(圖 15)들을 그려 넣었다. 전면 포벽화들은 채색층과 바탕층이 약 3mm 두께로 들떠 있고 거북이등과 같은 균열이 발생되어 있다. 동서측 벽화들은 많은 부분이 탈락되었고 시멘트로 보수한 후 칠을 했다.

② 건물내부벽화

실내 벽화들은 표면의 오염이 심하여 검고 어둡게 변색되었으며 누수가 흘러 내린 곳도 있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 위치한 만큼 색채의 보존은 좋으나 습기로 박락현상이 심하다. 포벽화들은 건물이 퇴락되면서 가해진 충격으로 벽체가 균열, 파손된 것이 대부분

14) 건물후면 포벽에 「嘉慶二十二年 丁丑 四月 海印寺書員同參」이라는 묵서명이 있고 후불벽 背面에 「大正二年 癸丑九月九日 重修」 등의 묵서명이 발견되었다.

분이다. 이 균열은 벽체 중앙의 중깃, 외가지를 중심으로 실외측과 실내측이 각기 다르게 균열, 파손되었다.

(4) 통도사 영산전 벽화(通度寺 靈山殿 壁畵)

이 건물은 조선 숙종 30년(1704)에 중건한 전면 측면이 각각 3칸인 다포건물이다. 벽화는 당초 53폭 이상이 있었을 것이지만 현재는 45폭이 남아 있다. 건물외부 벽화들은 퇴락 마모상태가 심하고 실내 벽화는 균열, 파손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① 건물외부벽화

포벽과 동서측 풍판에 가리워진 부분에 모두 16폭이 있다. 서측 벽화는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동측과 북측은 흙바탕까지 침식 마멸되었다. 다만 북측 포벽에는 1폭의 벽화만 남아 있다. 서측 벽화는 부처에게 공양하는 소년과 노인이 그려져 있는데 마멸과 손상이 심하다. 표면에는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어 벌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건물내부벽화

이 부분의 벽화는 모두 29폭이 현존하는데 영산전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석가여래가 묘법연화경을 설한 영산회상(靈山會上)(圖 16)의 장면을 천장 밑의 화반벽에 아름답게 그렸다.

벽화의 표면은 불순물로 몹시 오염되어 어둡게 변색되었다. 또한 벽화의 크기가 큰 만큼 자중(自重)이 크고 주위 목조가구의 퇴락 영향을 많이 받아 파손되고 있다. 목가구재 표면에 그려진 그림은 나무에서 배어나온 송진이 색조를 어둡게 변색시켰다. 좌우측간 벽화는 단창방이 위로 쳐들리면서 벽체를 짓눌러 크게 파손시키고 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취약한 벽화들에 사찰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벽면에 닿게 쌓아 놓아 인위적인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 그 외에 동측, 남측, 북측 벽화들은 대부분 균열로 인해 파손되었다. 동측 벽화는 포장(包作)이 기울어 벽체와 3cm정도 틈이 벌어져 벽화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고 있으며 북측 화반벽의 그림은 도리의 처짐으로 벽면에 수직 균열이 발생되어 파손되었다.

(5) 마곡사 대광보전 벽화(麻谷寺 大光寶殿 壁畵)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다포건물이다. 벽화는 건물 외부에 31폭, 내부에 81폭이 있다. 실내의 벽화는 활달한 필치로 화반벽에 나한도(羅漢圖)를 목판(木版)에 그렸으며 흙벽에는 고승설법도(高僧說法圖)를 그렸다. 나한도는 목판6개를 중첩해서 쌓고 그 위에 그렸는데 모두 36폭이다. 벽화 표면은 먼지 등이 침착되었고 습기 누수 등으로 균류까지 번식하여 색조가 검게 변색되었다. 채색층은 목판으로부터 접착력을 잃고 박락 되었다.(圖 17).

흙벽화들은 인위적으로 손상된 부분이 눈에 띄며 벽선이나 중깃 사이가 벌어지고 흙이 탈락된 상태이다. 후불벽 뒷면에 그려진 백의관음도(白衣觀音圖)는 후불벽에 한지(韓紙)를 여러겹 발라서 바탕면을 조성한 뒤 그림을 그린 것이다. 벽화 표면은 불순물로 오염상태가 심하며 종이가 들뜨고 섬유조직이 풍화되고 있다.

3. 벽화(壁畵)의 퇴락원인(頽落原因)

벽화가 손상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어느 특정한 한가지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한다.

(1) 자연적 요인

이것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벽화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환경(地理的 環境)과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 발생하는 건물의 퇴락, 그리고 건물과 벽화에 서식하는 조류(鳥類), 곤충, 균류등의 생물적 피해를 들 수 있다.

1) 지리적 환경(地理的 環境)에 의한 영향

건물과 벽화는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위 환경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소들로서는 태양빛의 자외선과 바람, 습기, 그 지역의 온도변화 등을 들 수 있는데 벽화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습기와 태양광선의 자외선이다. 대기 중의 습기는 벽화를 가장 쉽게 손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물기에 취약한 흙벽화의 경우 채색층이 붙어 있는 벽체를 붕괴시키므로 그 피해는 심각하다. 앞서 신홍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 건물 외부벽화들이 건물 하단에 위치한 벽화와 건물 후면 북측 벽화의 경우 음지에 인접된 숲으로부터 지속적인 습기, 빗물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소멸되었다. 또한 실내 벽면에 그려진 벽화라도 지면(地面)과 인접한 하단에 있는 것은 진흙벽 속이 부풀어 있거나 이미 많은 부분이 탈락되어 버렸다. 습기에 의한 퇴락현상은 진흙 벽체의 붕괴를 촉진 할 뿐만 아니라 채색층의 접착력과 바탕층 구성물질의 결합력을 약화시켜 채색층이 분말이나 작은 조각으로 박락되고 미생물이 번식되고 있다.

건물벽화는 대기에 노출됨에 따라 기온의 변화에 의해 항상 건습작용이 되풀이 되게 된다. 벽체 속으로 유입된 습기는 날씨가 건조할 때 채색층 표면으로 이동하여 대기중으로 증발한다. 이때 벽체 속을 이동하는 습기는 흙속에 다량 포함된 염분(鹽分)을 머금고 벽표면에 남기고 습기만 증발하게 되어 그림층에 화학적(化學的)인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5) 피해 현상은 서양의 프레스코 벽화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국내의 흙벽화에서도 벽화표면의 색조가 뿌옇게 얼룩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 벽화 보존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찰벽화는 조사된 바에 따르면 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태양광선과 바람 등의 피해는 건물 내부 벽화에 비해서 외부 벽화들의 경우가 더욱 마멸되었고 침식, 퇴색이 심함을 알 수 있다.

2) 건물(建物)의 퇴락(頽落)에 의한 영향

건물은 축조된 이후 여러 가지 원인으로 퇴락된다. 특히 지붕의 기와가 파손되거나 서까래가 부식됨에 따라 빗물이 흘러 내려서 벽면을 적시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건물이 퇴락되면 기초가 침하되거나 목조 가구재들이 부식되고 뒤틀려 고정된 상태에서 건물 구조체에 변위가 발생된다. 이 변위는 한식건물(韓式建物) 특유의 무거운 지붕 하중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아주 적은 변위라도 역학적(力學的)으로 벽체에 힘이 전달된다. 이 힘은 먼저 벽화의 벽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구조재(기둥, 창방, 평방, 인방, 벽선, 공포 등)에 전달되고 다시 벽화 테두리와 벽화속에 있는 중깃에 전달되어 벽화를 크게 파손시킨다.

벽화의 벽체는 두께가 보통 90~150mm 정도인데 그림이 그려진 채색층은 그 두께가 불과 1mm 내외이다. 건물의 변위가 주는 역학적인 힘은 흙벽을 쉽게 파손시키므로 흙벽에 피막을 형성하고 있는 채색층은 더욱 쉽게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건물의 벽에 현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옛 벽화들이 경우 중깃이나 벽선, 또는 벽화 테두리, 내부에서 발생한 균열과 파손으로 알 수 있다.

15) p.Mora, P. philippot(1984) 「Conservation of Wall Painting」, ICCROM, p. 165

3) 생물에 의한 피해

이것에 의한 피해는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조류(鳥類)와 벌류, 곰팡이 등의 균류에 의한 3종류가 있다.

조류에 의한 벽화 손상은 새들이 처마 밑이나 실내에 서식하므로 발생된 배설물로 그림 표면이 오염되거나 긁힌 현상을 말한다. 화엄사 각황전은 비둘기가 서식하면서 피해를 입혔고 신흥사는 알 수 없는 조류들이 긁어서 손상시켰다. 또 다른 경우는 건물내에 박쥐들이 서식하면서 손상을 입히기도 하였다.¹⁶⁾

벌류에 의한 손상은 벌이 벽에 지름 1cm 내외의 구멍을 뚫고 들어가 외를 엮은 부분에 흙집을 짓기 때문에 발생한다. 범어사 동측 외부 벽화나 화엄사 신흥사 포벽의 벽화가 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균류에 의한 손상은 벽화의 색조를 어둡게 변색시키고 채색에 사용된 동물성 단백질(아교)을 영양분으로 하기 때문에 안료들을 분말화하여 박락시킨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시각적인 조사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균류의 배양과 분류에 의한 과학적 조사가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인위적인 요인

벽화의 손상 가운데 인위적인 요인 역시 크게 작용한다. 이것은 벽화의 보존처리가 어렵고 방법과 기술의 국내 유입이 늦은 만큼 저변 인식이 부족하여 권리 및 보존의욕의 결여도 커다란 원인이 된다.

건물벽화는 건물이 축조될 당시의 상황이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고 그 수명을 건물과 함께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오래된 건물은 벽화가 매우 심하게 퇴락된 상태에 있다. 또한 건물 수리공사시 벽화 표면에 회등의 낙점이 형성되기도 하고, 아예 벽화를 철거하고 새로 그려 놓고는 했다. 그 외에 각종 사찰행사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적재해 두어 그림 표면이 손상되기도 한다.

실내에 있는 벽화의 표면은 촛불과 향을 사용하기 때문에 먼지 그을림 등으로 색조가 어둡게 변색되었다.

IV. 벽화보존방안(壁畫保存方案)

앞서와 같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퇴락된 벽화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법과 전문기술이 필요한 과학적 보존처리방법(科學的 保存處理方法)의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방법

벽화의 보존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이전에 벽화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측에서 보호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존방법이다. 즉 건물보수 시 상당한 수의 벽화가 훼손되는데 이 경우 주의를 요하여야 하며, 시설보강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지원이 파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변의 다습한 환경을 조성하는 지하수나 수목의 적절한 관리로 벽화를 더욱 양호하게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례용품(儀禮用品)을 벽화에 기대어 쌓아 놓거나 새롭게 단청(丹靑)을 하지 말아야 하며 방문객들에 의한 부주의로 인한 마모 파손을 미리 막아야 한다.

16) 백찬규(1989) “建物壁畫의 解體移轉工事와 그 保存” 「문화재」 22호, 문화재관리국

그러나 소유자나 관리자의 보호관리 한계를 벗어나는 범주가 있는데 그것은 건물 및 벽화의 진단과 보존처리, 보존대책의 수립 그리고 기술지원 등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관계기관과 정부의 협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과학적(科學的)인 보존처리방법(保全處理方法)

문화재(文化財)와 같은 선대(先代)의 유물(遺物)들을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과 이론, 기술이 정립되기까지 유럽에서는 약 2세기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벽화 보존을 위한 과학적 방법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보수대상물은 손질하기 전에 상세한 조사와 기록을 하되 그 절차와 처리방법, 사용되는 물질이나 첨가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이러한 이유는 훗날 벽화가 다시 보존처리를 요할 때 전문가가 바뀌었다하더라도 처리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② 역사적 증거물(證據物)을 모두 기록하되 파손되거나 변형 위조(偽造)하지 않도록 하여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둔다. 여기에는 윤리적 책임(倫理的 責任)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유물을 더 이상 퇴락손상없이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③ 어떠한 손질에서도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는 정당한 이론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벽화를 일단 해체하면 그 속성을 변질시킬 염려가 많으므로 벽화의 해체 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때는 천재지변(天災地變)이나 주위 환경으로는 더 이상 보존이 불가능할 때 선택한다. 모든 처리방법은 기술적으로 허용하는 선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나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가역성을 지녀야 한다.

④ 모든 손질은 가시적으로 아름답게 처리하되 과학적이어야 하며 외형적 보존(外形的 保存)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즉 색, 질감, 짜임새, 외관 등이 아름답게 조화되도록 하되 원 재질보다 돋보이지 않게 꾸미고 고친자리는 식별할 수 있게 한다.

벽화의 보존처리는 벽화가 처해있는 주위환경과 벽화의 구성재료, 퇴락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벽화가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을 때를 기준하여 처리방법에 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조사(調査) - 이 단계는 벽화보존처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즉 벽화 건물 내외의 습도, 퇴락원인의 조사, 벽화표면의 오염물질 및 안료분석, 그리고 채색층, 바탕층, 벽체의 퇴락상태를 조사한다. 이 작업에는 전문가 별로 벽화모사도 제작과 적외선 사진촬영, 일반사진촬영도 있어야 한다. 또한 세척과 천바르기, 경화처리를 위해서 벽화 귀퉁이를 이용한 재료의 적정성 시험도 있어야 한다.

2) 세척(cleaning) - 벽화표면은 오랜시간이 경과하면서 먼지 그을림, 조류의 배설물 시멘트, 못 등이 있어 이들의 제거 내지는 세척이 있어야 한다. 세척은 보통 건식(乾式)과 습식(濕式) 두가지가 있는데 건식세척을 우선으로 한다. 건식세척은 부드러운 양모솔이나 진공청소기 등으로 채색층의 접착상태에 따라 조심스럽게 처리한다. 습식세척은 벽화표면이 증류수 또는 묽은 암모니아수, 알콜 등에 내구성이 있을 때 사용한다.

3) 경화 접착처리(硬化 接着處理) - 벽화가 작은 조각이나 분말로 박락되거나 균열되었을때는 흩어져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존시키기 위해 경화 내지 고착(固着)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때 사용되는 물질(物質)은 접착력과 침투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용 후 건조시 너무 단단하거나 부서지기 쉬운 것이 아닌, 충격을 어느정도 흡수하는 유연성과 탄성을지녀야 한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산성(酸

性)이 아닌 용제로 제거가 가능한 가역성도 있어야 한다.

경화제로 사용할 용제는 무엇보다도 색깔이 없이 투명해야 하며 오랫동안 시간이 경과해도 색깔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또한 곰팡이류나 버섯류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양분이 되어서는 안되며 살균력이 있으면 바람직하나 작업원에게 독성(毒性)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독성이 있는 물질로는 Benzene Trichlorethylene, Tolune, Xylene, Trieline 등이 있다.

과거에는 아교나 어교, 우유, 계란의 흰자위, Shellac, 건성유(乾性油), 밀랍 등이 사용되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색깔이 노랗게 변색되거나 흰 피막이 형성되어 오히려 벽화를 손상시켰다. 19세기부터는 석회성분이 많은 벽화나 석재(石材)에 무기물이 사용되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다. 이 종류는 알칼리성 규산염을 비롯하여 실리콘 에스테르, 수산화바륨 용액 등의 이용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 외에 석회수나 중탄산칼슘(CaCO_3 , H_2CO_3) 등을 사용하나 무기질 종류의 경화제는 후에 제거가 곤란한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합성수지류가 권장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폴리비닐 아세테이트(PVA)와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아크릴산과 메타크릴산의 공중합체(共重合體)인 Paraloid B72 등이 있다.

벽체가 갈라진 틈을 Calcium caseinate를 사용하면 친화성이 좋고 결합력이 강하다.

경화제를 틈에 주입하기 전에 내부에 먼지를 불어내고 물에 섞은 알콜(50 : 50)을 틈속으로 주입하여 내부를 미리 적신다. 작업도구는 치과 의료용 소도구를 사용해서 정밀한 작업을 한다.

4) 채색보완 - 벽이 갈라진 곳이나 벽화가 깊이 파여서 새로 메운 곳은 주위그림의 색채와 조화를 이루도록 채색보완을 하기도 한다. 채색보완은 그림을 그려넣는 것이 아니라 세필을 이용하여 길이 0.5cm의 사선을 빗살무늬 형식으로 3~4회 반복하고 단색이 아닌 보카시가 되도록 한다. 또한 채색이 붙어있는(흙)바탕층과 같은색으로 사용하되 이보다는 밝지 않은 상태로 처리하기도 한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벽화를 건물에서 분리하여 보존처리하는 것이다.이러한 경우는 벽화가 있는 건물이 불가피하게 해체, 수리 해야할 경우나 다른장소로 이전할 경우에 사용한다. 벽화를 건물에서 분리하는 방법에는 지붕부터 해체해 내려오면서 벽화의 해체 순으로 분리하는 방법과 건물은 그대로 두고 벽화만 먼저 떼어내는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을 이용하던지 벽화에는 직접적인 충격이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해야 한다. 이 경우 먼저 벽화표면을 한지나 목면거즈로 Facing한다. 대개의 경우는 동물성 아교를 묽게하여 천바르기를 하는데 내부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천바르기가 끝나면 벽화의 양측면을 약 3cm공간을 남겨두고 보호틀을 설치한다. 보호틀과 벽화사이는 발포성 수지(發泡性 樹脂)나 석고를 충전한다.

벽화의 보존은 벽체 두께의 보존량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채색층만 얇게 보존하여 새로운 벽체로 이전시키는 스트라포(Strappo)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는 채색층과 바닥층까지 약 2cm내외의 두께를 보존시키는 스타코(Stecco)방법이 있다. 세 번째로는 어느정도 두꺼운 상태나 벽체 전체를 보존시키는 스타코-아 -마세로(Stacco-a -masello)의 방법이 있다.

대개의 벽화들은 자중(自重)이 크고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이전이나 보관 등을 위해 스타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벽화들은 그 두께가 보통 100mm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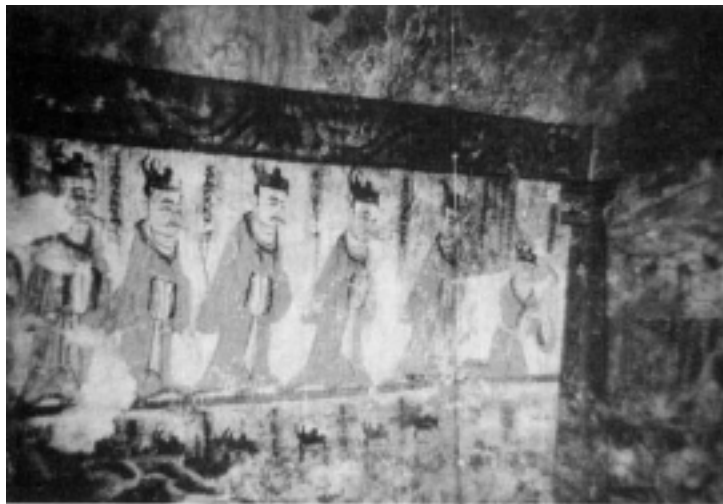
외이므로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문화재보존철학의 측면에서도 가장 바람직하다. 사찰벽화들은 진흙벽과 벽체 중앙에 외가지가 있기 때문에 건물에 그대로 보존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균열이 심한 경우가 많다.

건물에서 분리된 벽화를 벽체구조와 상태에 따라 보강조치가 필요하다. 벽체보강방법은 흙벽의 균열과 파손된 부분을 경화처리하여 안정시키고 균열틈을 메워서 채색보완하는 것과 이 작업이 완료되면 새로 보강된 벽체로 이전시키는 작업으로 나뉘어진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방법은 충분히 두꺼운 벽을 가진 스타코-아-마셀로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대표적인 예는 부석사 조사당 벽화가 있다.¹⁷⁾ 두 번째 방법은 얇은 두께의 스타코나 스트라포에 직물과 액자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유리섬유나 벌집형 그리드(Honeycomb Greed) 또는 합성수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장 권장되고 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시대 사찰벽화의 형식과 퇴락현상 및 원인 그리고 그 보존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벽화의 퇴락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원인은 효율적(效率的)인 유지관리(維持管理)와 과학적(科學的)인 보존처리(保存處理)로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기관의 사찰벽화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구체적인 보존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서 소유자 및 관리자의 보존의식 고취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圖1】德興里 古墳壁畫 13군 태수

【圖 1】 덕흥리 고분벽화(德興里 古墳壁畫) 13군 태수

17) P.Mora. P.Philippot(1984, 전게서 p.211 그러나 이 방법은 근대에 사용하지 않는다.
백찬규(1985) 榮豊 浮石寺 祖師堂의 壁畫保存處理. 「保存科學研究」 6집, 문화재연구소



[圖2] 浮石寺 祖師堂壁畫 證長天王도

[圖 2] 부석사 조사당벽화(浮石寺 祖師堂壁畫) 증장천왕도



[圖3] 無爲寺 極樂殿의 說法圖

[圖 3] 무위사 극락전 설법도(無爲寺 極樂殿 說法圖)



[圖4] 無爲寺 極樂殿의 阿彌陀來迎圖

[圖 4] 무위사 극락전의 아미타래영도(無爲寺 極樂殿 阿彌陀來迎圖)



[圖5] 新興寺 大寂光殿의 아미타삼존도

[圖 5] 신흥사 대적광전(新興寺 大寂光殿)의 아미타삼존도



[圖6] 新興寺 大寂光殿의 약사삼존도

[圖 6] 신흥사 대적광전(新興寺 大寂光殿)의 약사삼존도



[圖7] 新興寺 大寂光殿의 六大菩薩圖

[圖 7] 신흥사 대적광전(新興寺 大寂光殿)의 육대보살도(六大菩薩圖)



[圖8] 新興寺 大寂光殿의 후불벽 뒷면벽화

[圖 8] 신흥사 대적광전(新興寺 大寂光殿)의 후불벽 뒷면벽화



[圖9] 동도사 靈山殿의 見寶塔品變相圖

[圖 9] 통도사 영산전(靈山殿)의 견보탑품변상도(見寶塔品變相圖)



[圖10] 무위사의 후불벽뒷면 벽화

[圖 10] 무위사의 후불벽뒷면 벽화



[圖11] 무위사 극락전 후불벽화

[圖 11] 무위사 극락전 후불벽화



[圖 12] 선운사 대웅전 후불벽화

[圖 12] 선운사 대웅전 후불벽화



[圖 13] 무위사 극락전 벽화의 속그림과 겉그림

[圖 13] 무위사 극락전 벽화의 속그림과 겉그림



[圖14] 신흥사대적광전 주악천인

[圖 14] 신흥사대적광전 주악천인



[圖15] 은해사 백홍암 벽화

[圖 15] 은해사 백홍암 벽화



〔圖16〕 통도사 영산전 벽화

[圖 16] 통도사 영산전 벽화



〔圖17〕 마곡사 대광보전 판벽화의 퇴락상태

[圖 17] 마곡사 대광보전 판벽화의 퇴락상태